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1월 14일 (제93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 컬럼

행복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딤후6:7~8).

행복은 인류의 영원한 화두다. 그런데 행복에도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먼저는 할 일이 있고,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며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지족하는 마음이 없기에 불행하다는 것이다.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행복의 커트라인을 두기에 그렇다. 남들처럼 큰 집을 가져야 행복하고, 남들처럼 큰 차를 타야 행복하고, 남들 자식처럼 내 자식도 일류대학을 가줘야 행복하다고 느끼기에 행복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행한 것이다.

행복은 좋은 향수와 같다고 한다. 향수는 남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뿌리는 것이지만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 향에 취하고 즐기게 된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가 속한 단체가 행복해진다. 행복의 바이러스가 향수의 향이 퍼지듯 전염되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은 자가발전이다.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내가 행복메이커가 되어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자가발전의 주원료가 감사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은 가동된다.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잠 잘 수 있는 곳이 있어 감사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고... 이러면 행복발전소에서 행복은 이미 만들어 우리 삶을 충전시킨다.

2018년,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 헤매지 말고,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보자.

믿음과 의욕은 넘지 못할 벽이 없다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발걸음은 구성원 전체의 생각과 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리더의 수준을 넘어서 수 없고, 리더가 지향하는 목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저서, “의욕을 상실한 자에게서 지휘봉을 뺏아라”는 그 제목 하나로 우크라이나(Ukraine) 노동당 당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다. 그는 드네프로페트롭스크(Dnepropetrovsk)에서 목사님을

자주 언급하시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나 경영의 신이라 불렸던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 이들은 잘 알다시피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어떤 조건도 그들의 꿈을, 그들의 야망을, 그들의 넘치는 의욕을 잠재울 수 없었다. 배우지 못했기에 더 배우려 애썼고, 귀를 크게 열고 들었다. 일체의 자존심을 버리고 더 큰 목표를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목사님 말씀처럼 문

히 사소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목사님의 목회 33년을 보라. 그 시간의 대부분을 주류 교계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으며 지내왔다. 여느 사람 같으면 벌써 타협하거나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목사님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돌파해오셨다. 하나님만 바라본 결과다. 17년의 해외선교사역도 마찬가지다. 말도 통하지 않는 전혀 낯선 땅에 들어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선교역사에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루어



의욕을 상실한 자에게서 지휘봉을 뺏아라
적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지휘관이다

찾아와 조언을 듣고 이 책을 당원교육 교재로 써야겠다며 러시아어 번역본을 대량 구입해 돌아갔던 일화가 있다.

인류 역사의 진보는 어떤 특정 인물의 기여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상상력, 실천력, 그들의 넘치는 의욕이 차지하는 역할이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수많은 난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돌파한 결과, 인류의 역사는 눈부신 진보를 이루어왔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욕은 학력을 뛰어넘는다. 입지전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남보다 학력이 높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남보다 배우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의 의욕을 누르지 못했다. 목사님이

제를 친구 삼고, 문제를 징검다리 삼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현재의 조건을 탓하며 낙심하고 좌절한다. 그러나 내가 보고 판단하는 세상이 다인 양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오만은 버려야 한다. 도전과 모험을 기피하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 목사님의 말씀은 충분히 귀기울일만하다.

“희망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믿음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네 자신이 희망을 버리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문제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믿음만 보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인간의 눈에는 분명 풀 수 없는 난제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순간에 말라버리게도 할 수 있는 지극

오셨다. 그 어느 것도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끌겠다는 목사님의 불같은 의욕을 꺾을 수 없었다.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한 불같은 의욕과 열정이 있기에 그 옛날 사하라 사막을 건넌 대상(隊商)들이나 정복자들처럼, 모든 핍박과 훼방을 넘어 오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것이다. 이제 나이조차 목사님의 의욕을 꺾을 수 없다. 스스로 30대라 여기고 새로운 30년을 달려가고 계신다. 우리는 믿음의 확실한 샘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새해는 또 가고 있다. 언제까지 우왕좌왕할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 말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지금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계시다. 다시 시작하자!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7:1~6)



생수와 콜라의 차이를 알라

생수와 콜라의 차이를 아십니까? 생수는 흔들려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만, 콜라는 흔들린 상태로 따면 난리가 납니다. 경험 있으시죠? 펍하고 거품이 나와 옷 버리고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일요.

콜라 같은 사람, 많습니다. 조금만 감정을 건드리면, 조금만 인격에 손상이 오면, 조금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면 펍하고 거품을 쏟아내는 사람, 곧 화를 내고 격하게 분노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성격이 원래 그래요. 다혈질이라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분노, 화를 내는 순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합니다.

성경말씀입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잠27:4). 창수(漲水)란 강물이 불어서 넘쳐나는 물을 말합니다. 홍수가 났을 때 급류 보셨지요? 그것들이 어디 인정사정 봐줍디까? 집이며, 자동차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 쓸어가 버립니다.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흔들린 콜라를 따면 다 쏟아져 정작 마실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잠25:28). 성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성읍을 방어하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그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적군이 들어와 다 죽이고 약탈해갈 것 아닙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영웅호걸보다 나를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의 경우를 봅시다. 민수기 20장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리바에 이르러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쥔 모세는 늘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여 그만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그렇게도 그리고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신34:1~5). 그래서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욕하고 분노하면 사망이 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땅의 저주를 받고, 떠도는 유랑자가 된 원인도 바로 분노 때문이었

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창4:4~8).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칭송하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다윗을 쫓다 결국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비명횡사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자나 살인자의 특징이 뭘 줄 압니까? 자기감정을 조절하지 못

하고 쉽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건사고 소식을 보면, 애인이 헤어지자고 하니 화

가 나서 죽이고, 위층에서 소음이 많이 나서 화가 나 죽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욕하는 성질 정말 안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전7:9).

그러나 생수 같은 사람은 다릅니다. 생수도 많이 흔들면 약간의 거품이 일어나나 바로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수 같은 사람은 화가 전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잠19:11).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잠29:11). 화 날 때 참는 자가 바로 살아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이며,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맞받아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그래서 결국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전염이 잘 됩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누가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라고 하면서 나도 화를 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화를 내면 아내는 더 크게 화냅니다. 혹여 남편이 무서워 밖으로 화를 표출하지 못한다면 속에서 씹씹거리거나 입을 다물어 버릴 겁니다. 내가 화를 쏘면 상대는 살려니까 방패로 대처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담이 쌓인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자식과 부모가, 목사와 성도가 서로 상대를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정, 기업, 교회가, 그런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찌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울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잠22:24~25)는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콜라가 거품이 일어날 때는 뚜껑을 몇 번 치던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따면 된다네요. 화가 나걸랑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말을 하든가 행동을 하면 평생 후회할 일은 안 합니다. 또한 상대가 화가 났걸랑 잠시 피하세요. 거품이 이는 콜라 옆에 있으면 내 옷도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

이 원천적인 분노를 제어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예 성령으로 거듭나야, 즉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온유'요,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갈5:22~23).

마음을 다스리면 천하를 얻는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뵈기 전에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행9:1).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옛 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매한 핍박과 환난과 모함에도 참고 이겨냈고, 더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한 그의 편지가 그의 변화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 혈기가 사라지고 온유한 자가 됩니다. 제 얼굴에서 사나움이 없어지고, 제 마음에 노가 사라집니다. 누가 저에게 욕을 해도 "안 보는 데서는 임금님도 욕하는데." 하며 허허 웃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과멸입니다. 그래서 화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결국 죽이게도 하는 것이 마귀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4:26~27)라고 말했습니다.

분노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정말이냐고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5:20~21).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됩시다. 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마5:5)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비에 새겨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목적을 향하여 질주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간의 꿈과 기도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드러내줍니다. 오늘 그

가 찾고 있는 것들이 미래에 그가 무엇을 얻게 될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각인된 가장 커다란 기억은 그가 이룩한 성공이나 부(富), 영향력보다도 그러한 성취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에서 수행해온 지난한 노력들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전투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앞에 새롭고 더 위대한 목적이 생기면, 다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뛰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의 가장 중대한 시기는 내가 꿈꾸는 것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오늘날입니다.

오늘 힘써 노력하는 사람은 내일 성공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꿈꾸며, “왜 안 돼?”라고 말하고,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며 망한 것들을 살려 역사에 맥을 굿는 그러한 사람은 동시대에 함께 살며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입니다. 나는 진실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

망합니다!

2018년에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망한 것이 일어나며,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기적과 평화와 사랑,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웃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행복과 번영, 평화와 평안 가운데 우리의 꿈과 목적이 실현되고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상상하는 것마다 축복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영광스런 성취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아름답고 진정한 사랑이십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여,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셔서 우리 삶에 어떤 불행도 없게 하소서. 능력과 지혜로 항상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여주소서. 그리하여 증오와 죄악과 수치를 이기고 진선미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가까이 있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시 31:19).

우크라이나 드네프로예수중심교회
슬라바 목사

영적치매를 회복하는 한해가 됩시다



미국에 아내 가치매에 걸린 어느 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치매 걸린 아내에게 노인 남편이 다시 청혼해서 결

혼식을 올린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치매전문요양원에서 지내는데 매일같이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서 아내를 만나러 와서는 몇 시간씩이나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내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못 알아보고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다주는 좋은 아저씨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요?”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왜 좋으냐’고 물었더니 ‘아이스크림을 늘 사줘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나와 결혼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한참을 고민하던지 ‘계속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요양원 원목에게 주례를 부탁드리곤 크리스마스 오후에 자녀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자 남편이 메모해온 인사말을 읽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분들을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결혼식을 다시 한 것은 단 한번 만이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특히 연말이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깨닫게 해주기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올 한해를 보내며 내가 영적치매 상태에 빠져 있던 적은 없었는지, 주님을 참된 주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움에 있어서 아이스크림이나 사다주는 그냥 착한아저씨로 대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내가 좋으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결

혼해 줄래?” 하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아이스크림 매일 사주면 할게요.”라는 조건 달린 대답이 아니고 내 주인을 알아보는 건강한 영적상태로, 내 남편을 알아보는 건강한 사랑의 모습으로, 활짝 웃는 얼굴로, 감사하는 얼굴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얼굴로 언제 어디서든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으로 답하실 수 있기를 축원 드립니다.

“네, 주님. 좋아요. 사랑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영적건강을 회복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회복의 2018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일본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겸손과 순종



할렐루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18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도 넘

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모든 만물을 지배하며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창1:27~28).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충만한 복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강 건너 어렵듯이 여리고 성읍이 보였습니다. 그렇

게도 속망했던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넘쳤을까요.

그러나 요단강의 수위는 한껏 높아 있었습니다. 우기가 끝난 4월 봄이 되어 보리 추수가 되었는데 최북단 험몬산의 눈이 녹아 흘러내려와 급류를 이루는 바람에 강의 폭은 넓고 수심은 깊고 물살은 급해졌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나 뗏목이나 다리라도 만들어야 할 상황에서 여호수아 총사령관은 참으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고(수 3:5), 언약례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면 백성들은 그 뒤를 쫓으라고 했습니다(수 3:6).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시행하도록 종용한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듯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따를 것인지 양자택일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순간에 여호수아의 겸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요단강의 창일한 물을 멈추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 3:15~17).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이성적이며 상식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 전혀 쓸데없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도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듯이 보이는 요단강이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그 강을 건널 것인지, 즉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단강의 창일한 물을 볼 때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인지, 인간적인 경험과 상식으로만 요단강 도하를 시도해 볼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새해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 나와 내 가정을 지나쳐 버리지 않고 머물러서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순종의 삶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2017년의 표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문에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는 뜻은 무조건 악한 자의 못된 모략과 계략이라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이민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하고자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들에만 의존하여 많은 손해를 보는 성도들을 접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과 경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우후죽순 같은 정보에 의존하여 자신의 신앙을 침륜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지...

저는 2018년에도 예수중심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귀한 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호주 예수중심종은교회
김평강 목사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라



대전예수중심교회 (2018.1.5)

총회장 목사님은 작년 12월 8일에 이어
지난 1월 5일, 새해 벽두부터 대전교회를
재차 방문하셨다. 이는 대전교회 성전신
축과 관련해서다.

총회장 목사님은 지난해 대전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은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 것’을 강조하셨다. 그 말씀이 옳았다. 목사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은 지난 번 내가 왔을 때 ‘빨리 옮겨야 한다, 빨리 나가야 한다’며 다들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좋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현재 대전교회가 세든 그 땅을 샀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에 어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흥분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 등 각양의 것들로 즐거이 드리며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즐거이 드리며 동참한 것도 기록되어있습니다. 대전교회도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장로가 진심을 다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대전교회 성전을 짓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분뿐 아닙니다. 홀로 사는 분도, 또한 아이의 저금통을 깨트려 건축헌금으로 드린 분도 있습니다. 멀리 호주에서도 건축헌금이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대전교회는 아무 부족함 없이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물질이 없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 되고, 건축할 때 봉사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성전 건축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차로 자재를 운반했습니다. 교회 성도 중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여 헌금을 할 수 없어 인부들에게 밥을 지어주기 위해 쌀을 씻고 난 쌀뜨물로 먹이를 쭉어 수레를 끄는 말에게 먹였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를 지은 장로가 죽어 천국에 가서 자기 교회 교인들 상급을 보게 되었는데, 본인의 상급이 기대와 달리 없어 예수님께 물으니 '너는 네 의를 다 드러냈기에 상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밥해주던 과부는 자기보다 상급이 많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로는 회개하며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청하니 예수님이

허락하사 살아나서 그 과부를 찾아가 성전 건축할 때 무엇을 했기에 당신은 하늘의 상이 그리 많은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하는 말이 ‘제가 뭐가 있어야죠. 그저 자재 운반하는 말에게 쌀뜨물로 된 먹이를 준 것 밖에요.’ 했습니다. 장로는 크게 깨닫고 평생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많이 했다고 드러내서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을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선망의 대상,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보고 격동하여 ‘그들처럼 나도 되리라’ 노력하고 애써야 옳은 처사입니다. 33년 묵회에 그런 자들을 증오하는 자들의 최후가 좋지 못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성전건축에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봉사를 많이 한 자들을 존경하고 기도해줄망정 증오하거나 헐뜯지 맙시다.

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또한
모두 동참한다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는 하나님도 그의 삶을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그러나 수수방관하는 자나 훼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손을 놓으시거나 흠어버리신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기에 그렇다.

대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성전건축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바란다.

김기현

김기현

나를 축복하라

지난 해 12월, 심한 감기몸살을 앓고 있는 성도의 가정을 심방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프냐?”며 통곡한다. 순간 나도 말문이 막힌다.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요1:29)해주시고 모든 각색질병을 고쳐주시려고 오셨는데(막1:34, 마4:24), 나도 주의 종인데 종종 아프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 받을까?’ 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그’가 아닌 ‘나’를 통해 원인을 살펴보고며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어겼다. 또 불규칙한 생활, 폭식위주의 잘못된 식습관, 편의위주의 인스턴트 식단들, 운동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의주의를 선호하며 살았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 몸이 내게 말한다. 힘들다고. 그러나 나는 무시했다. 결국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고서야 나는 내 몸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며 고쳐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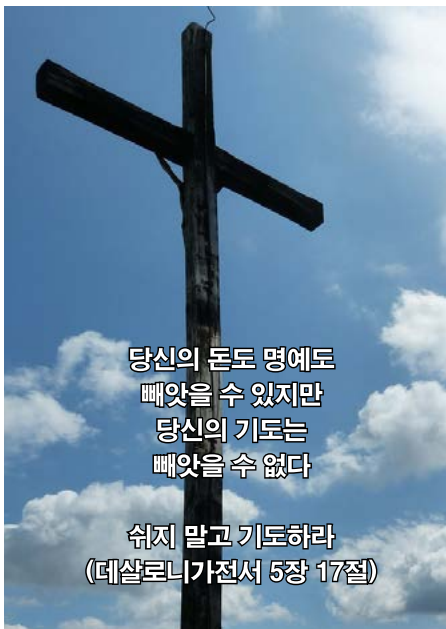
한 15년 전의 일로 기억된다. 88체육관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단에서 귀신을 쫓고 안수를 하시는데 1기 여전도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위로 뛰어오른다. 목사님은 여느 성도들과 차별을 두지 않고 귀신을 쫓고 안수를 하며 축복하셨다. ‘1기 전도사님이신데 참 용기가 대단하시다.’ 가식 없는 그 믿음을 내 속에 저장해두었다.

수년전 질병으로 고통 받던 때 그 날도 단상에서는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다. 나도 그 전도사님처럼 단상으로 뛰어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 관절로 고통중인 옆 사람에게 “우리도 나가서 안수 받을까?” 했으나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그래도 전도사’ 라는 것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종이나 성도나 다 일반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데 성도를 바라보니 주님께 나가지 못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치 않은 나는 그 후 한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당신의 돈도 명예도
빼앗을 수 있지만
당신의 기도는
빼앗을 수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아마추어와 프로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예술이든 스포츠든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업계든, 어떤 분야든지 돋보이는 프로들이 꼭 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걸 보면 쉽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엄청나서 역시 그들은 보통사람에겐 없는 타고난 재능이 있을 거야, 확신하게 되지요. 원래부터 잘 했을 거고 시작부터 능숙했을 거 같달 까요. 이런 저의 생각을 단순히 반전시킨 건 미국의 대표적인 화가인 척 클로스의 한마디였습니다. “아마추어가 영감을 기다릴 때, 프로는 작업한다.”

그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재능이 아닌, 기다리느냐 행동하느냐의 차이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젊은 작가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고 하지요. 영감이 떠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지 말라고. 구름이 갈라지고 천둥 번개 같은 것이 확 뒤통수를 치는 영감을 기다려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작업 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묵묵히 작업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생각도 떠오르고 일도 벌어진다고요. 기막힌 소재가 떠오르지 않아서 글을 쓰지 못하는 작가 지망생에게, 영감이 떠오르지 않

아서 붓을 잡지 못하는 화가에게,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무언가 시작하기를 계속 망설이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따끔한 일침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비보다는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건 재능이 나 영감 보다는 시작, 그 자체 아닐까요. 학창시절 내가 천재라면 얼마나 좋을까, 자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재가 되고 싶었던 의도는 상당히 불순했었는데요. 제게 천재는 보통 사람들보다 적게 노력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는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력 없이 얻은 재능으로 뭐든 쉽게 이루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거의 기형적인 행태가 된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졸업식도 가지 않고 훈련하는 김연아의 연습량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는, 회사원보다 더 규칙적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스케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팔리기까지 몇 년간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버리고 내고 버렸던 존경하는 선배의 뒷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재능 덕분에 원하는 걸 이뤘다고 하

기엔 그들의 노력은 범재 이상의 것이었지요. 이제는 잘 압니다. 프로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서 된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된 거라는 걸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히.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래, 준비가 되면 진짜 할 거야’, 그런 말로 오랫동안 시작을 미루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모세가 완벽한 리더로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바로 왕 앞에 서는 날은 아마도 평생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은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뻗뻗해도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의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2018년 1월 1일, 다이어리를 펼치고 새 해에 이루었으면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 옆에 언제 시작할지 작게 메모해두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처럼 일단 시작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신은혜

신은혜

dopal0203@naver.com